

2013년 8월 20일

후쿠시마 피해자 지원자 지바현 마쓰도 주재

후쿠오카 모모코

동경 전력(東京電力)의 수소 폭발이 있는지, 이제 곧 2년반이 되어 갑니다.

후쿠시마(福島)의 피해자들은, 원전 사고 오염으로 인해 자신들이 살았던 곳을 떠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. 쫓기어 고향을 떠나고,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. 멀리, 미지의 땅에, 게다가 프리패브로 된 4.5 초라고 하는 좁은 공간의 가설 주택에 살게 되었습니다. 익숙하였던 가게도 병원도 먼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. 많은 분들이 불편한 환경을 참고 있습니다.

「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돌아갈수 없게 된 자신들의 주택은, 2년이상 밀폐되었기 때문에, 음식물의 부패, 습기로 인한 집안의 곰팡이, 비가 새는등 너무나도 심한 상태입니다. 또 많은 쥐가 발생하여, 기둥도 가구도 갇아 먹어서, 악취가 심하여,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. 아름다웠던 정원은, 풀 무더기로, 전답도 황폐 되어 버렸습니다. 어떤 마을에서는, 소가 떼를 지어 다니고, 이노부타(멧돼지와 돼지의 혼합), 원숭이 등, 인간을 모르는 동물들이 제멋인 양 마을을 걷고 있습니다.」

... 이런 이야기를, 자주 듣습니다.

살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주택. 그러나 나라는, 적극적으로 정화 작업을 하여 돌려 보낼 방침으로 있습니다. 피해자는 방호 옷을 착용하고, 주택 정리를위해 들어갑니다. 비용은 모두 자비로, 쓰레기 봉투도 쥐 구제제도, 자신들이 사지않으면 안됩니다.

지원금을 요구해도, 피해자들의 외침은 전달되지를 않습니다. 지금, 후쿠시마(福島)의 많은 분들이 심신이 매우 지치고, 살 기력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.

「돌아갈 수 없다면,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해달라」

「확실히 말해주지를 않으니, 방침도 대책도 분명히 세울수가 없어,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버린다」

... 이런 목소리를, 많이 듣고 있습니다.

제 눈으로 보아도 후쿠시마의 피해자 고뇌는 한층더 지독해진것 같습니다. 「나라는 후쿠시마를 버렸다」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.

인간의 존엄, 살 권리, 생활 보장, 노동 안전, 건강관리 등,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, 후쿠시마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?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.

원전의 땅 상황을 전하는 1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. 가즈라오무라(葛尾村)에 사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. 『시집 우리 눈물—원전으로 고향에서 쫓겨나』 (오지마 찌가라 슝, 니시다(西田) 서점, 1400 엔+세금). 아무쪼록 읽어 보아 주십시오.

지면의 형편상, 피해지역의 사진을 실을수 없습니다만, 블로그 「후쿠시마(福島)의 현실—후쿠오카 모모코씨의 목소리」 (<http://wwwmomfukuoka.exblog.jp/>)을 보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.

<지원에 관한 문의> 후쿠오카 모모코 (팩스) 047-346-8675 (휴대전화) 080-5547-8675 (메일)f. mom. 1941@ezweb.ne.jp (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부탁드립니다)